

시골학교의 ‘영어 반란’

보성남초 영어생활화 효과…우수학생 선발돼 미국 연수도



전남도의 한 시골학교가 사교육 없이 모든 학생이 생활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산 영어교육에 도전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보성남초등학교(교장 문덕근)는 사교육 없이도 영어민족은 대도시 어느 학교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 학교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육활동 시스템을 영어 캠프화 스스로 없이 영어를 듣고 말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등교부터 남다르다. 교문 앞에서 교장과 영어식 눈맞주기로 인사를 주고받는다. 이때 교장과 학생들의 가벼운 인사말이 영어로 교환된다. 아침 영어방송도 자체제작. 원어민 교사가 직접 재미있는 영어방송을 진행한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중심, 생활중심의 소재로 쉽고 재미있게 학생들의 흥미를 충족시켜준다.

학교생활 공간도 영어식 생활공간으로 바꿨다. 영어로 말하기를 실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영어 생활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또 5~6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때마다 영어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교내 영어발하기 대회도 열어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둘기부여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보성남초등학교가 힘을 쓴다

부분은 영어수업 방법 개선이다. 외국인 강사를 초청해 영어로 강의하고 듣는 등 연수방법도 획기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교사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자율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5학년 2반을 영어 교육 시범학급으로 선정해 영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매진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을 기록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6학년 학생들이 전라남

도가 주관한 ‘여름방학 영어 체험 마을’에 참가해 우수학생으로 뽑혀 한 달간 미국 미주리 대학원생으로 선발됐다. 한양은 전남도 영어체험캠프에서 초등학교 780명의 영어 영재 중 9명 안에 드는 실력을 뽑았다. 한 송희양 본인 스스로의 노력과 보성남초등학교의 영어 교육이 맛은 결실로 이 학교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시골학교의 영어반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눈을 돌려 학생들에게 국제적 안목도 키워주고 있다. 학생들에게 외국대사관에 영어 E-mail 보내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E-mail 보내기는 반크운동을 본 뜻으로, 우리 문화나 자랑거리를 영어로 만들어 외국대사관에 보내는 독특한 아이디어다. 학생들에게 영어를 접하게 하면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배려인 것이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보성을 여성지원봉사회(회장 장숙자) 회원들이 990㎡(300여평)의 휴경지에 심은 배추 2천포기로 김장을 담가 관내 150세대의 소외계층에

〈보성군 제공〉

“김치에 사랑을 버무렸어요”

전달했다.

광양시 ‘재난 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광양시가 국지적인 집중호우와 같은 예측이 어려운 기상재해 등 각종 위험요소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광양시는 지난 7월 재난종합상황실과 주요 재해위험지역 감시를 위한 CCTV와 수위계 등 재난대응 시설구축을 완료한데 이어 각종 시설정보를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safe.sun.go.kr)를 최근 개통,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홈페이지에서는 기상정보와 함께 광양을 등 7개 주요 재해위험지역에 설치된 실시간 CCTV 영상정보를 비롯해 서천, 동천, 삼정교, 장동교 등 4개소에 설치된 하천 수위정보, 12개 읍면동에 설치된 우량계의 실시간 강수량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청수기자 choung47@



‘2009 문화기자 한마음대축제’ 국가별 민속축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여수 문화민속예술단의 부채춤 공연 모습.

곡성 하늘나리마을 농촌가꾸기 장려상

곡성군 죽곡면 상한마을 ‘하늘나리 농촌전통테마마을’이 8회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마을조성기금 3천만원을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 농어촌공사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농촌체험마을 가운데 우수마을을 선정, 포상함으로써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지난 2004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선정된 상한마을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마을민들의 후한 인

심,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 밝운 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한마을은 ‘풀처럼 달콤하고 하늘처럼 깨끗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봉꽃을 주제로 해 밀납초 체험과 한봉꽃을 주제로 해 밀납초 체험과 밀납공예, 별명령 만들기를 상시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한 고로쇠 트레킹을 비롯 매실 수확 체험, 수수떡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다봉관, 농기구 전시체험관 등 많은 볼거리가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경주기자 kjkim@

여수 다문화예술단 대상

다문화공연상 부문

여수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다문화 민속예술단’이 ‘2009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보고회’ 다문화공연상 부문에서 으뜸상(대상)을 차지했다.

여수 지역 다문화 가족 주부들로 구성된 ‘다문화 민속예술단’은 최근 전국 10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뛰어나고 화려한 부채춤 공연으로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사진〉

이들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전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09 다문화 가족 한마음 대축제’ 국가별 민속 춤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 전국대회 출전자격을 얻었었다.

태국과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출신들이 이뤄진 11명의 여수 지역 다문화 가족 주부들로 구성된 ‘다문화 민속예술단’은 지난 광주·전남대회에서 참가팀 중 가장 뛰어나고 화려한 부채춤 공연으로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사진〉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예우증진·기념사업 등 유공자 사기진작 공 인정

순천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 ‘보훈문화상’을 받았다.

순천시는 24일 서울 벽암기념관에서 열린 국가 보훈문화상 시상식에서 지역내 보훈단체 대상자, 유족들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온 것이 공적으로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훈문화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대우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예우증진 ▲기념사업 ▲언론홍보 ▲교육문화 부문에 대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부문이 신설됐다.

순천시는 그동안 다양한 보훈대상

자 위로 행사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참전 유공자 1천300여 명에게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 사기를 높이는데 힘쓰온 공이 인정됐다.

특히 보훈관련 조례 3건을 제정해 보훈가족의 위상과 높이고 옛 순천 보훈지청 건물을 보수해 3개 보훈단체 사무실로 지원하는 등 보훈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jja@

이웃 사랑 행복 나눔

농·어촌에 공중목욕탕 기증

여수 GS칼텍스

목욕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

에 공중목욕장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지역민들의 보건 위생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노인복지관은 25일 여수 돌산을 군내리 공사장에서 ‘공중목욕장’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첫 삽을 뜯은 공중목욕장은 GS칼텍스(주)가 지역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가족 목욕장은 물론 지역민들의 보건 위생 환경에 기여하면서 이뤄졌다.

연건평 약 266.46㎡ 2층 규모로 신축되는 돌산 공중목욕장은 1층 목욕장과 샤워실, 텔아웃 등이 들어서고 2층은 복지프로그램실과 체력단련실 등이 마련된다.

내년 3월 완공되면 보건위생 환경은 물론 건강관리 실, 체력단련실, 복지프로그램실이 함께 운영됨으로써 돌산읍과 인근 남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심시일반 연탄 2만장 전달

LG화학 여수공장

여수산단내 LG화학 여수공장(주)재원원 유근창 부사장(내 11개 봉사단이 심시일반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사랑의 연탄’을 구입, 불우이웃에게 전달해 미답이 되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 임직원 2천100여명은 봉급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모은 사랑의 성금 가운데 1천400만 원을 들여 연탄 2만장을 구입,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여수시내 불우이웃 100가구에 가구당 200장씩을 전달한다.

이들은 봉급 통장에서 매달 1개좌(2천원)에서 10개좌까지 사랑의 성금(투원·엔젤 기금 2x1004원)을 맡기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올 들어 550여 차례에 걸쳐 독거노인 보살피기와 결식아동 돋기, 지역 환경보호활동은 물론 문화동아리를 결성해 복지관이나 양로원을 직접 찾아가 공연도 펼치는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正心 正視 正行

◆ 명당 공인증개사 082)431-2834.
(H.P) 010-6460-2834

▶ 전남 달성군 명신동

- 배나무 과수원 수령 17년 430주

- 창고 30평, 도로 사용권호

- 대가 50평, 행정부 15평

▶ 광주 광산구 응곡동

- 단 558평, 경당 9만평

- 도로길, 투자지 4만평

▶ 전남 영광군 용현면

- 일자 12,730㎡(7,180평), 행정 7천평

- 대지자 30평, 도로 10평

▶ 전남 보성군 봉양면

- 일자 1360㎡-평당 5천평

- 도로길, 낙동강, 이산 경지도와만

▶ 전남 창원 유곡리

- 전 403평 폐매가 3천2백평

- 가족집과 주택동

- 도로길, 낙동강, 이산 경지도와만

▶ 광주 북구 태평동 염곡동 부근

- 일자 804.72㎡ 폐매가 1천2천평

- 관리지역 일부포기, 허락지역 및 저수지

- 일자 2,000평(10만평) 80평

- 세제, 물정증지 가능, 자수지역

- 매매가 1,000평(50만평)

▶ 전남 화순군 화순면

- 일자 73,000㎡ 평당 1만평

- 도로길 일자이며 현수령은 1만평

- 도로길 일자이며 현수령은 1만평

▶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 일자 6,070평 평당 1만평

- 계획관리지역, 저수지수용지, 저수지수용지

- 토지주변 경우 170주 폐지, 풍물 및 창고

- 또는 투자율로 적합

▶ 전남 장성군 삼성면 삼계리

- 전 2307㎡, 평당 1만평

- 계획관리지역, 저수지로 500m

- 토지주변 경우 170주 폐지, 풍물 및 창고

- 또는 투자율로 적합

▶ 전남 장성군 월산면 월계리

- 일자 2,567,157㎡(77만 5,565평), 평당 1만

- 토지전용 민도지, 현 범부주 조림지,

- 80평 이상 개발 가능, 도로 및 천장 양호

▶ 전북 순창군 동계면 이동리

- 일자 21,165㎡ 평당 1만평

- 계획관리지역, 저수지수용지, 저수지수용지

-